즉시 배포용: 2016 년 8 월 18 일 **ANDREW M. CUOMO 주지사**

쿠오모 주지사, 십대 청소년 장기 기증 허가 법안에 서명

앤드루 쿠오모(Governor Andrew M. Cuomo) 주지사는 오늘, 16 세 및 17 세 청소년의 사망 시 장기 기증을 허가하는 법안(S.5313-A/A.4990-B)에 서명했습니다. 이 법안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18 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그 결정을 백지화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"여전히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이 생명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, 주 정부는 장기 기증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"**,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.** "16 세와 17 세 청소년의 사심 없는 장기 기증 결정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주의 장기 기증자(Donate Life) 명단을 늘리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."

현행 법에 따르면 뉴욕 주에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 세입니다. 따라서 16 세 또는 17 세에 임시면허증을 신청하는 뉴욕 주민들은 뉴욕 주 장기 기증자 명단(New York State Donate Life Registry)에 이름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. 16 세와 17 세 청소년의 등록이 허용됨으로써 이제 뉴욕 주는 완전히 새로운 연령층을 대상으로 명단을 열 수 있게 되었으며, 이는 결국 기증률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.

Kemp Hannon 상원의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"이 중요한 법안의 입법에 서명함으로써 뉴욕 주 전역의 16 세 및 17 세 청소년들이 장기 기능이라는 용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신 쿠오모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도 이러한 생명의 선물을 필요로 하는 뉴욕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데, 이 법령은 뉴욕 주의 장기 기증자 명단을 확대함으로써, 질환을 앓고 있는 뉴욕 주민들이 애타게 필요로 하는 장기를 제공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"

Felix W. Ortiz 의회 부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많은 청소년들은 장기 기증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입니다. 이 법령은 16 세 이상 뉴욕 주민들이 뉴욕 주 장기 기증자 명단(Donate Life Registry)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물론, 부모님들은 여전히 최종적 허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 뉴욕 주는 이식용 장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상회하는 공중보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. 이제 주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더욱 효과적으로 장기 기증을 장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단 한 명의 장기 기증자가 8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이 조치가 이제 주 법령으로 채택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"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